

국별 리포트

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0. 10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0
V. 종합의견	13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I. 일반개황

면적	603.6천 km ²	G D P	1,174억 달러(2009년)
인구	45.7백만 명(2009년)	1 인 당 G D P	2,569 달러(2009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Ukrainy Hryvnya
대외정책	친서방 정책,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	환율(달러당)	7.79(2009년)

-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,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국가임.
- 우크라이나인(78%), 러시아인(17%)을 비롯, 벨로루시인, 루마니아인 등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동부공업지역(러시아인)과 서부농업지역(우크라이나인)의 민족, 문화적 차이가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2004년 시민혁명(일명 오렌지혁명) 이후 점진적인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2010년 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.
- 대외적으로는 친러 성향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한편, EU와의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 ^e
경제성장률	7.3	7.9	2.4	-15.2	4.7
재정수지/GDP	-0.7	-1.1	-1.5	-6.5	-6.0
소비자물가상승률	9.1	16.6	22.3	12.3	11.7

자료: IMF, EIU

□ 2010년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전망

○ 우크라이나는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국제가격 상승, 해외자본 유입 및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,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.

○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가격 상승세 및 7월 IMF와의 금융 지원 합의에 따라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.

- 2008년 8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산업생산증가율이 2009년 11월 플러스로 전환되었고, 세계 철강 가격 상승 및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말 우크라이나 경제가 저점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됨.

* 산업생산증가율 : 11.5%('08. 2.) → -34.1%('09. 1.) → 8.6%('09. 11.)
→ 6.4%('10. 7.)

- 201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%를 기록해 2010년 1분기의 4.9%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, 2010년 하반기에는 취약한 공공재정으로 인해 성장 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

- 우크라이나는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5%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에는 22.3%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급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.
-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, 해외자본 유입 감소 등 전년 대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으나,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음.
- 2010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%대로 둔화된 이후 4월에는 9.7%를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가스요금 인상, 러시아,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흉작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□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보합세 유지

- 2009년 재정수지는 2010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6.5%의 적자를 기록했음.
-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GDP 대비 5.3%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7월 GDP 대비 5%로 수정했음. 그러나 세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2010년 말 6%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 2011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재정적자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

- 재정수지/GDP: -1.5%('08) → -6.5%('09) → -6.0%('10)

2. 경제구조 · 정책

□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약한 소비재 산업기반

- 우크라이나 경제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주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, 철강 제품이 총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철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함.

- 정부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 기반, 교통 인프라 및 시설 기반 등이 미약한 편이며, 구소련 시대에 각광받았던 항공, 우주 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.

□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

- 우크라이나는 철강,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석유 수요의 80%, 가스 수요의 7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 양국관계의 경색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.
 - 러시아가 2006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할인 가격혜택을 폐지해 2006년, 2009년 및 2010년 초 양국간 가스 분쟁이 발생해 가스 공급이 중단된 바 있음. 2010년 4월 타결된 가스가격 협상 결과 2010년 러시아산 가스공급 가격은 2009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 - * 러시아산 가스 1,000 m³당 수입가격(달러) : 95('06) → 130('07) → 179.5('08) → 260('09) → 230~240('10)

□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 보유

-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영토 면적 기준 3위의 국가로 철광석(매장량 세계 1위), 망간(매장량 세계 1위), 석탄(매장량 세계 6위), 우라늄(매장량 세계 10위)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음.
- CIS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4,57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가능성도 높은 편임.
 - 2005~08년까지 임금 상승, 소비심리 호조 등으로 연평균 25%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던 소매(retail sales) 부문은 2008년 하반기 경기침체로 2009년 말 전년대비 -20.6%의 성장률을 기록했다. 그러나 가계소비 증가로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.5%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나타냄.

□ 대 서방 에너지 수송로 역할과 친서방정책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

-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및 물류의 주요 통로로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통과세(transit fee)를 확보하고 있음.

-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80%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음.
- 친서방의 대외정책과 WTO 공식가입(2008년 5월)으로 향후 EU 및 세계 경제권 편입에 유리한 입장임.

□ IMF와의 대기성차관 지원 협의 완료

- 우크라이나는 금년 7월 28일 IMF 대기성 차관(총 151억 5천만 달러, 지원 기간 2.5년) 지원에 합의했으며, 즉시 19억 달러를 집행하기로 결정함. 향후 차관 집행은 분기별 검토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임.
-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우크라이나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있으며, 재정개혁과 에너지, 금융분야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함.
- IMF 권고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연금 부문 개혁을 포함한 긴축예산을 실시할 계획이나 IMF 권고 수준인 3.5%의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□ 국내 가스 공급가격 인상 조치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권고에 따른 가스 소매시장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가스 공급 가격을 2010년 8월 1일자로 50% 인상하기로 결정함.
- 2010년 4월 러시아와 가스 수입가격을 30% 인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, 국내 가스 공급 가격 인상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국영가스공사인 Naftogaz의 취약한 재정상황 개선과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 ^e
경상수지	-1,617	-5,272	-12,763	-1,801	777
경상수지 / GDP	-1.5	-3.7	-7.1	-1.5	0.5
상품수지	-5,194	-10,572	-16,091	-4,655	-3,240
수출	38,949	49,840	67,717	40,394	49,710
수입	44,143	60,412	83,808	45,049	52,950
외환보유액	21,843	31,786	30,801	25,557	32,640
총외채잔액	54,512	79,956	101,654	102,964	106,745
총외채잔액 / GDP	50.6	56.0	56.4	88.7	88.5
D . S . R .	18.2	17.5	19.9	43.9	36.5

자료: IMF, EIU

□ 철강가격 회복으로 인한 총수출 증가

- 2007~08년 총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철강 가격 강세로 연 30%대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해 왔으나, 2009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해외 철강 수요가 감소해 총수출이 2008년 대비 35% 이상 감소했음.
- 2010년에는 세계 철강 수요 회복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총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.

* 철강 가격 추이(US\$/톤): 169.4('08. 12.) → 158.9('09. 12.) → 200.0('10. 5.) → 187.5('10. 9.)

□ 경상수지 플러스 전환 전망

- 2006년 이후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,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.
- 2010년에는 대외 수요 증가 및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침체로 인해 수입 회복세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.

□ 외환보유액 증가세 회복

-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2007년까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해외직접투자(FDI) 증가,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2008년 7월 37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256억 달러로 감소했음.
-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다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총외채잔액은 보험세 유지

- 우크라이나는 2008년까지 경기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해외차입이 크게 증가해 총외채잔액이 2005년 말 333억 달러에서 2008년 말 1,017억 달러로 급증함.
- 2008년 하반기 이후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2008~09년 총외채잔액 수준은 보험세를 유지했으며, 2010년에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.
- 총외채잔액은 2008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GDP 규모와 총수출이 크게 축소되어 GDP 대비 88.7%('08년 56.4%), 총수출 대비 174.8%('08년 111.67%)로 악화되었음. 2010년에도 동 비율은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외환보유액 증가세 회복으로 외채상환 부담 완화

- 2009년 중 총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Hrvynya화 평가절하로 인해 DSR이 크게 상승했음.
- 2010년에는 총수출 및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채상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.
 - DSR: 19.9%('08) → 43.9%('09) → 36.5%('10)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 안정

□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연정 구성과 총리 인준 성공으로 정치적 안정 강화

- 2010년 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당선 이후 3월 11일 ‘지역당’, ‘공산당’, ‘리트빈 블록’ 및 무소속 의원들이 총 235석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새로운 정당 연합을 구성하여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의 인준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음.
 - 아자로프 총리 지명자는 러시아 태생으로, ‘지역당’의 부총재로서 야누코비치의 최측근 인사임.
- 새로운 정당연합을 구성하는데 실패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,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‘지역당’ 중심으로 정당연합을 구성하는데 성공함과 아울러 측근 인사가 총리로 인준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게 되었음.

□ 연립정부 구성원 간 협력 원활

-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 여당인 지역당을 제외한 리트빈 블록, 공산당 등의 세력은 미약한 편으로,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역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며 연정 내 큰 갈등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.
- 티모셴코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야당 세력이 존재하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성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2. 사회 및 소요사태

□ 언어, 종교 문제 등으로 인한 동서 지역간 갈등 지속

- 우크라이나 내 언어, 종교,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통합 및 정치·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-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철강, 화학 등 공업지대인 동부지역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,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수도 키예프 중심의 서부지역은 티모셴코 전 총리를 지지함.

□ 국지적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잔존

-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나 2008년 이후 경기침체와 취약한 공공 재정 상황,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가스 가격 인상 및 연금 제도 개혁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

-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유럽 안보조약기구의 창설 지지, 러시아어의 제2공용어 복귀,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연장, 가스 협력 확대 등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면서 러시아에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.
 - 양국은 2010년 3월 5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, 통상, 우주, 항공기 제작, 원자력, 나노기술, 군사기술, 정보기술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.

□ EU와의 협력 강화

- 우크라이나는 오렌지혁명 이후 친서방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는 세계무역기구(WTO)에 공식 가입한 바 있음.
-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아직 요원하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07년 말 만료된 EU와의 동반자협력협정(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: PCA)을 대체하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신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EU와의 관계 강화를 러시아-벨로루시-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가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현황

□ 2008년 하반기 이후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등급 하락

- OECD는 2009년 1월 정치 불안정, 재정적자 악화,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한 데 이어, 2009년 4월 과도한 민간부문 외채, 연립정부 갈등 심화 및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대한 이행의지 불충분 등을 들어 재차 1단계 하향 조정해 최하등급인 7등급을 기록함.
 - 2010년 1월 회의에서도 정치 불안정 지속, 자본유출 기조 지속, 은행 산업의 건전성 악화, IMF 긴축재정정책 권고 이행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7등급이 유지되었음.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고인플레이션, 재정수지 및 상품수지 적자 확대,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급속히 하향 조정했음.
 - S&P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2008년 6월 이래로 2009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4단계나 하향 조정했으며, Fitch도 2008년 9월 이후 2009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하향 조정했음.

□ 2010년 들어 S&P, Fitch 등 신용등급 상향 조정 추세

- 2010년 들어 우크라이나가 정치 안정세와 경제 여건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&P는 국가 신용등급을 3월, 5월 및 7월 3회에 걸쳐 상향 조정했으며, Fitch도 7월 IMF 대기성차관 지원 합의 후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음. Moody's는 2009년 5월 이후 B2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
* 주요 평가기관의 우크라이나 국가 신용등급 현황

- OECD : 5등급 ('08. 1.) → 6등급 ('09. 1.) → 7등급 ('09. 4.) → 7등급('10. 1.)
- S&P : BB-('05. 5.) → B+('08. 6.) → B('08. 10.) → CCC+('09. 2.) → B-('10. 3.) → B('10. 5.) → B+('10. 7.)
- Fitch : B-('05. 1.) → BB-('08. 9.) → B+('08. 10.) → B('09. 2.) → B-('09. 11.) → B('10. 7.)
- Moody's : B1('03. 11.) → B2('09. 5.)

2.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 수은 : 제한적 인수 가능
- ECGD : 최고부보율 적용
- Hermes 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

3. 외채상환태도

Naftogaz의 채무재조정 진행

- 국영가스공사인 Naftogaz는 2009년 9월 말 만기인 유로본드 5억 달러를 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11월 이를 포함한 총 16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했음.
 - 5억 달러의 유로본드는 만기를 5년 연장하는 한편, 우크라이나 정부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함.
 - 총 11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대출(Deutsche Bank 3.95억 달러, Credit Suisse 5.5억 달러, Depha Bank 2.2억 달러)은 16억 달러의 유로본드(2014년 만기)로 전환됨.

러시아산 가스 수입대금 정상 지급

- Naftogaz는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대금을 2009년 초 이후 정상 지급하고 있음.
- 양국은 2010년 4월 우크라이나가 2017년 만기 예정인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둔 기간을 25년 연장하는 한편,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앞 가스 수출대금을 30% 인하하는 데 합의함. (1,000 m³ 당 230~240달러 수준 예상)

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3>

한 · 우크라이나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'10. 8.	주요품목
수 출	1,546	1,773	426	409	자동차, 합성수지, 자동차부품
수 입	295	824	793	492	철강제품, 합금철선철및고철, 식물성물질
합 계	1,841	2,597	1,219	901	

* 자료: KOTIS, 한국무역통계

□ 국교수립: 1992. 2. 10 (북한과는 1992. 1. 9. 수교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('95), 항공협정, 투자보장협정(이상 '96), 이중과세방지협정('99), 원자력협력협정('01), 세관협력협정('03),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('06)

□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 회복세

- 양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2008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억 달러를 기록함.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53% 감소한 1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,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8월 말 현재 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*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65위 수출상대국, 45위 수입상대국임.(2010년 8월 말 현재)

-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, 합성수지 및 자동차부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제품, 합금철선철및고철 및 식물성물질임.

□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증가세 미미

-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0년 6월 말 기준 2.5억 달러(29건)로, 2008년 투자액이 558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투자금액은 8만 달러로 급감했음.

- 2010년 1~6월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금액은 8.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* 연도별 투자금액: 3.3만 달러('07년), 558만 달러('08년), 8만 달러('09년), 8.1만 달러(10. 8월)

V. 종합의견

- 우크라이나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,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가격 안정, 내수 회복, 2010년 IMF 구제금융 지원 재개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.
-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총수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이 편중되어 있으며, 러시아가 수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.
- 2010년 1월 대선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된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이 강화되었고, 친러 성향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한편, EU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되고 있음.
- 2008년 하반기 중 정치적 불안정, 재정적자 심화,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국제 주요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나, 2009년 하반기 이후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추세임.

책임조사역 허정옥 (☎02-3779-6653)

E-mail : johuh@koreaexim.go.kr